



# 하늘(천국) 시민권

7과. 2026년 2월 14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감옥에서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남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상 훨씬 더 폭넓고 더 높은 도덕적 원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 ➡ 하늘 시민권:

- ➡ 충실한 사람들을 본받아 (빌 3:17-19)
- ➡ 완전한 시민권 (빌 3:20-21)

### ➡ 천국에 갈 때까지:

- ➡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기뻐함 (빌 4:1-6)
- ➡ 정결한 생각 (빌 4:7-9)
- ➡ 자족함 (빌 4:10-13, 19)

하늘 시민권

# 충실한 사람들을 본받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빌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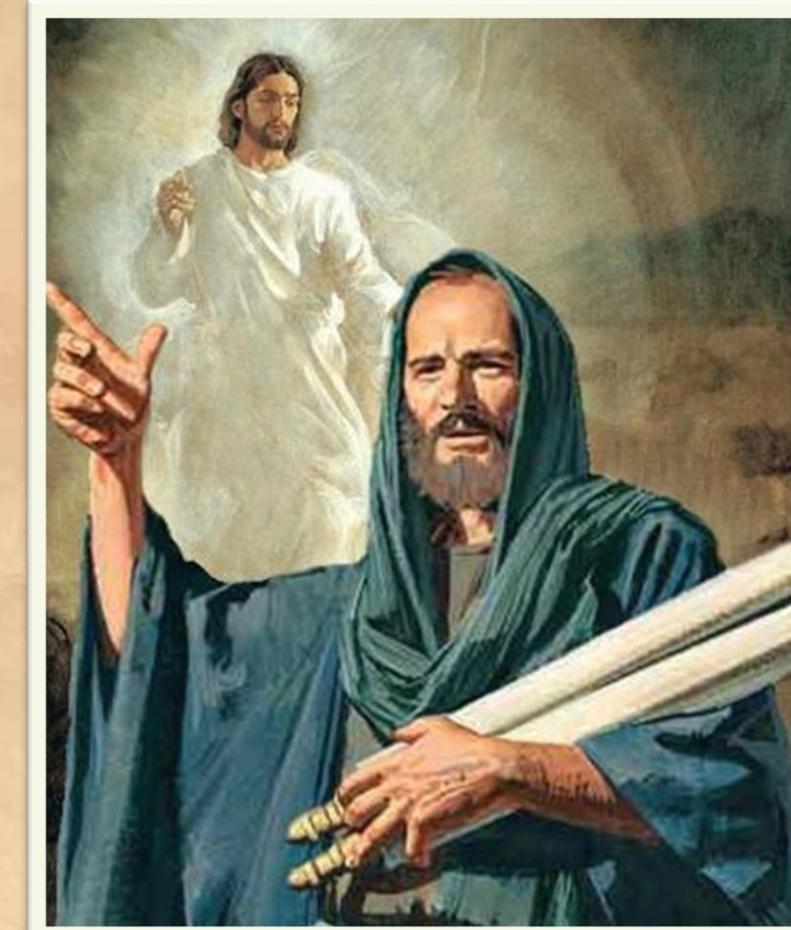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과 생각을 꼴 지어준 우러러 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술가, 운동선수, 음악가, 가수일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자,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영웅”들은 각자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길로 우리를 이끌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빌 3:17). 또한 그는 교인들 중에도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빌 3:18-19).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후자는 오직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반면, 전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고전 11:1).



# 완전한 시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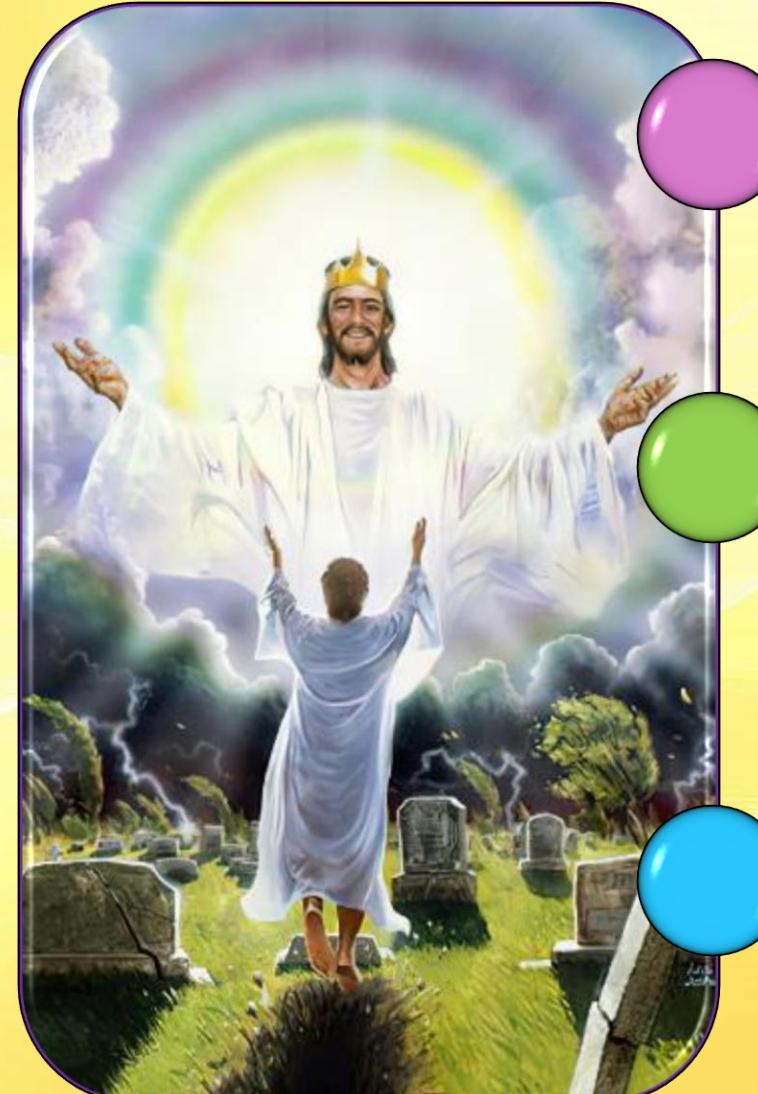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중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 시민입니다. 이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롬 7:22-23).

우리는 언제 완전한 (하늘) 시민권자가 될까요? 언제 이 악한 세상의 시민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빌 3:20).

우리가 부활, 아니면 홀연히 변화되어 죽음의 지배아래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몸을 갖고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욥 19:25-27)

우리 몸은 영적이고 불멸하며 병들거나 늙지 않을 것입니다  
(고전 15:42-44, 50-54).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골. 3:4, 빌. 3:21)

천국에 갈 때 까지

#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기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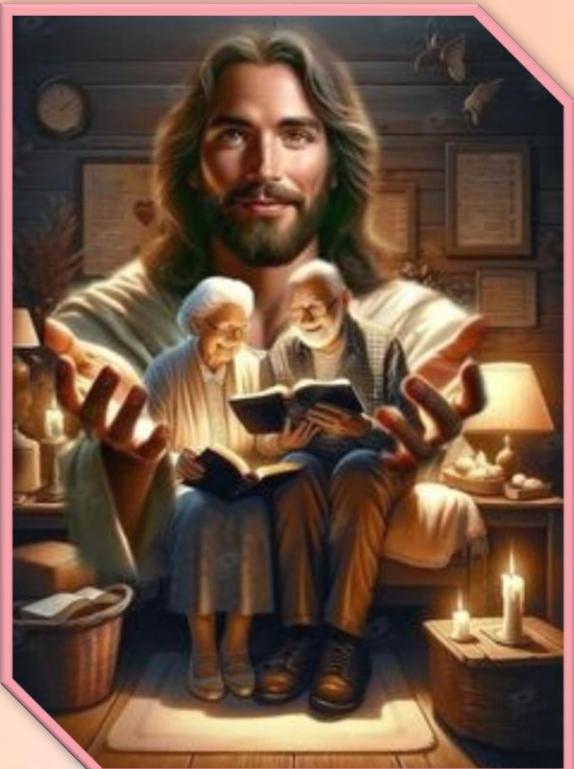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바울은 개인적 안부인사와 실질적인 조언을 하면서 편지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충실한 동역자인 시지구와 클레멘드에게 유오디아와 신티케를 맡기며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빌 4:2-3).

다음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 4:4, 6). 문제들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빌 4:4a).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 6:31-34; 베전 5:7).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함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빌 4:6).



# 정결한 생각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 4:8)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빌 4:7).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요 14:27; 16:33).



이 평안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빌 4:7b). 이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생각들을 품어야 할까요?  
(빌 4:8)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 4:8b)



# 자족함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빌. 4:19)

우리는 행복하고,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평안을 누리고... 순수한 생각만하고, 완벽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빌 4:11-12, 19).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 30:8-9).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 할 것입니다 (빌 4:13).



# 자족함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빌. 4:19)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 4:2b; 요일 5:14-15).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의 구원을 위한 기도 (딤전. 2:3, 4)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용기 (계. 22:17)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죄 용서를 구함 (요일 1:9)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능력 (히. 13:20, 21)

우리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사랑함 (마. 5:44)

어려운 문제를 해쳐 나갈 지혜를 구함 (약 1:5)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도 (요 8:32)

“우리는 다음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계획도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모두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며,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렌 화잇 (우리의 높은 부르심, 8월 24일)